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3호 [투계 제2669호]

주체 110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음력 9월 1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위대한 경장을 모시여 국가로 강대하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보여주는 진리☆

지금 평양에서는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련일 수많은 참관자들이 전람회장으로 몰려들어 여기저기 전시된 무장장비들을 돌아보고서는 하나같이 감탄을 터치고있다.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이처럼 막강한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감격과 기쁨을 금할 수 없다. 위대한 우리 국가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렇듯 역설 자위의 보증을 안겨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싶다.》 《첨단무장장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절세의 위인의 령도를 받으며 헤쳐온 국방공업혁명의 길이 눈앞에 우뚝이 언저졌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혼신을 다 바쳐 결사분투해나가겠다.》 《우리 나라가 비축한 거대한 힘과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가슴부터 안아보면서 위대한 강국의 공민된 긍지를 안고 더 많은 강철을 뽑아내겠다.》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영원무궁한 안녕과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무적의 군사력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과 필승의 신심이 이 가슴에 끓어올랐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겠다.》 ...

전람회장을 찾는 사람마다 이처럼 격정과 흥분을 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다면 오늘과 같이 공화국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국가방위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위의 강력한 보증을 마련하시려고 애민헌신과 사생결단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헌신의 로고를 떠나 생각

할 수 없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려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 남긴 자욱은 그 얼마였던가. 그 길은 인민의 운명을 지켜 모든틀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너무도 위험천만한 화력진지들에 나서시는 그이께 국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얼마나 간절

히 아뢰었는지 모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전한 곳으로 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시험을 시작할 수 없다고, 조국과 인민이, 후손만대가 우리를 용서 안한다고 그리고도 절절히 만류하였건만 그이께서는 위험천만한 시험사격장으로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나가시었고 파도치는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화력진지로 향하시어 주체병기들의 장엄한 폭음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그 눈부신 불꽃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아 주시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시며 낮이나 밤이나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세계를 놀래우는 주체병기들이 태어나고 국가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무릇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중의 사랑은 식솔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한다. 잘 먹고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일을 받는 강한 인간, 남들앞에서 땀땀한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이 아버지의 사명이기때문이다. 천만식솔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위대한 아버지의 제일 큰 사랑은 드높은 존엄을 안겨주고 그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강대한 힘을 키워주는것이다.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하여 침략자들

의 발굽에 짓밟히우고 속절없이 사라져버린 홀려간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힘이 강해야 조국의 안전과 번영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가르치고있다. 번영과 행복, 문명, 그 모든것에 앞서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강대한 힘을 키워주는것,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아버지의 제일 큰 사랑이고 제일 큰 공적이 아니

겠는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해 쌓으신 크나큰 업적으로서 민족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전람회소식에 접하여 세계의 수많은 언론, 전문가들도 저마다 격찬의 목소리들을 터치고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연설, 거대한미 내로, 《그 형식과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개최하는 무기전시회들과 결코 짝지 않는 전람회》,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국력을 과시한 사생적인 전람회》, 《열병식도 아닌 사상 첫 무기전람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그동안 축적하여온 국방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새로운 형식, 독특한 방식을 선보인 전람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에서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림없는 최우선정책이고 목표이며 드림없는 의지라고 언명하시었다. 천출명장을 모시여 주체조선의 군력은 나날이 비상강화될것이며 강력한 군력이 있어 이 땅에는 영원히 평화가 담보될것이라는것이 국방발전전람회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다시금 새겨안은 귀중한 진리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유진동지, 당중앙위원회 군사공업부 부부장 김정식동지와 국방과학원 지도간부들이 시험발사를 지도하였다.

국방과학원은 5년전 첫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를 시위한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축연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의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다

얼마전 조선로동당 창건 76돐을 맞으며 성대히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공화국은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제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이라는데 대하여,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오늘날 세인이 경탄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방력은 철두철미 전쟁을 막고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생명을 보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키워온 자위적힘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사는것은 인류

가 간직해온 오랜 숙망이다. 돌이켜보면 인류력사의 갈피마다에는 각종 형태의 크고작은 전쟁들이 헤아릴 수 없이 기록되어있다. 인류사는 말그대로 전쟁의 력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전쟁으로 인류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기에 로씨야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알려진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19세기 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전쟁과 그를 전후한 력사시기의 사회생활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보여주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념원에 대해 나뉘도록 피력하였다.

허나 전 인류가 그토록 념원하는 평화는 아직까지 꿈으로 남아있으며 인류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 피비린내 풍기는 전쟁사는 종식되지 않고있다. 공화국의 반만년력사를 뒤 돌아보아도 외세의 크고작은 침입이 무수히 기록되어있다.

그때문에 몸서리치는 전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고 목숨을 잃다못해 민족의 귀중한 재부도 수없이 파괴되어왔다. 이 땅에 태를 물은 사람이 라면 누구나 지난 세기 50년대에 외세의 모조리 조 선전쟁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현열적인 그 전쟁이 안겨준 상처는 70여년이 넘는 오늘까지 이 땅의 많고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더우기 아직까지도 삼천리강토의 남쪽땅에는 외세가 주린처럼 들끓고있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영원한것으로 만들고 이 땅을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실현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홀려온 력사의 교훈과 오늘날 공화국을 둘러싸고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는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또다시 처절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국가의 존엄 그자체가 갈장나

고만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때문에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위적국방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오늘날에는 온 나라 인민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는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놓았다.

진정 공화국의 국방력강화사업은 그 첫걸음부터 철저히 자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앞으로 또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번 기념연설에서 공화국의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역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이처럼 공화국의 주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 그자체이지 특정

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북조선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낡고 뒤떨어진 근심고민과 동상적인 사망감을 벗어놓지 못하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높아대며 이종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언동들을 서슴지 않는 남조선당국은 하루빨리 과도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주적과 전쟁에 대한 립장을 독촉히 알고 외세에 추종하여 겨레가 념원하는 평화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들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세력과도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키워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토론회

재증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대한 재증조선인총련합회 학습토론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학습토론회에는 최수봉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김경수 재증조선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심양시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데 대한 《로동신문》의 글이 랑독되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최수봉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지금 이 역방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조국인민들이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우리 공화국의 통일변영을 안아오기 위한 자립적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을 밝혀주시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시정연설에는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상승시키기 위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적과업들이 천명되어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시는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은 내외에 조선반도와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고 온 겨레의 조국통일념을 더욱 불

리일으키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전체 토론회참가자들은 력사적인 시정연설의 기본사상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새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사회주의조선의 해외공민들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었다.

본사기자